신뢰와 고객감동 서비스로
국내·외 엔지니어링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주] 세진엔지니어링
TEL : 062-384-6333
대표전화 : 1588-4556

전남매일
www.jndn.com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제8347호 대표전화 (062)720-1000

명품 아파트! 명품 브랜드!
중흥S-클래스
www.s-class.co.kr

"여의도행 티켓 잡아라" 표심잡기 시동

4·15총선 'D-16'

▶관련기사 3·4·5면

경쟁률 광주 5.25대 1·전남 4.5대 1
내달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본격화
1~6일 재외투표·10~11일 사전투표

후보등록과 함께 4·15 총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여의도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쟁탈전도 막이 올랐다. 최대 관심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석 탈환과 현역의 생환 여부다. '당이냐, 인물이냐'를 놓고 막판까지 이어질 지역민의 선택이 주목된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5 총선 후보등록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8개 선거구에 42명이 등록해 5.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20대 총선의 5.38대 1보다 낮아졌다. 민주당 이형석 후보, 민생당 최경환 후보 등이 나선 북구을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전남에서는 10개 선거구에 45명이 등록해 4.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민주당 소병철 후보, 민중당 김선동 후보, 무소속 노관규 후보 등이 나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현역의원은 송갑석(서구갑)·이개호(담양·장성·영광·함평)·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 등 3명이다. 민생당은 장병완(동남갑)·박주선(동남을)·천정배(서구을)·최경환(북구을)·김동철(광산갑)·박지원(목포)·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윤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 등 8명이 포진했다.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 우세가 점쳐졌으나 최근 경선과정에서 각종 비방과 고소·고발이 제기되는 등 후유증이 나타나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현역의원이 3명에 불과하고 대다수 후보가 정치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생당 중진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의 수성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 후보가 지난 20대 이어 두 번째로 도전장을 낸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여성의원이 몇 명 나올지도 주목된다.

진보진영 득표율 경쟁도 볼거리다. 정의당은 광주 6명·전남 4명의 후보를 냈고, 민중연합당은 광주 3개와 전남 3개 선거구에 출전하는 의욕을 보였다.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행을 택한 현역의원과 후보들의 돌풍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주선 의원에게 후보자리를 뺏긴 동남을 김성환 후보와 북구갑 김경진, 여수갑 이용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정인화 후보 등은 인물론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광주와 전남 여야 후보들은 4·15 총선 후보등록을 마치고 첫 주말과 휴일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에 최대한 접촉을 자제하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펼쳤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1당 독점이던 과거와 달리 민주당와 민생당이 정치개혁과 인물론으로 경쟁을 벌이면서 본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선과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불거진 '오만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과 민생당으로 이동한 현역의원들에 대해 지역민들의 판단 등이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이며,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30일까지 홍보물 발송을, 4월 1일까지 선거벽보 제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일부터는 유세차를 동원할 수 있고, 읍면동마다 벽보와 현수막도 걸 수 있는 등 선거운동이 더 자유로워진다.

▶2면으로 이어짐

/황애란 기자

이낙연, 순천서 지원유세 29일 오후 순천시 조례동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전남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과 이낙연 전 총리가 손을 들어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광주지역 제조업체 1분기 매출 22% '뚝'

광주상의 조사, 자금경색 심화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경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지난 2~13일까지 광주지역 1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가 73.8%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가 3월 초순에 이뤄진 만큼 그 이후 코로나 확산 등을 고려하면 피해 업체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 양상으로는 '내수위축에 따른 매출감소'가 3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출 감소(15.5%)', '자금경색(13.9%)', '중국산 부품, 자재조달 어려움(12.8%)'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2019년 4분기 대비 1분기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이 65.4%로 가장 높았으며 매출감소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매출이 평균 22.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분기 매출 전망에 대해서도 '1분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실적에 대해서도 1분기 자금조달 여건이 '지난분기보다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5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분기 자금조달 여건 전망 또한 가장 높은 46.2%가 '1분기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제조업체들이 체감하는 산업현장 피해 정도를 메르스·사스 등 과거 전염병과 비교한 결과, 63.8%가 '과거 전염병들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응답했다. '과거 전염병들과 유사하다'는 23.8%, '과거 전염병들보다 더 적다'는 12.3%에 불과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29일 "일본 수출규제 피해 등 기존의 대내외 경기 악재도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영향까지 겹치면서 매출 감소, 자금경색, 부품 자재 조달 애로 등으로 인한 경영피해가 심각하다"면서 "금융·세제지원, 내수 회복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과 제도 등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광주 AI 기업들 올해 150명 채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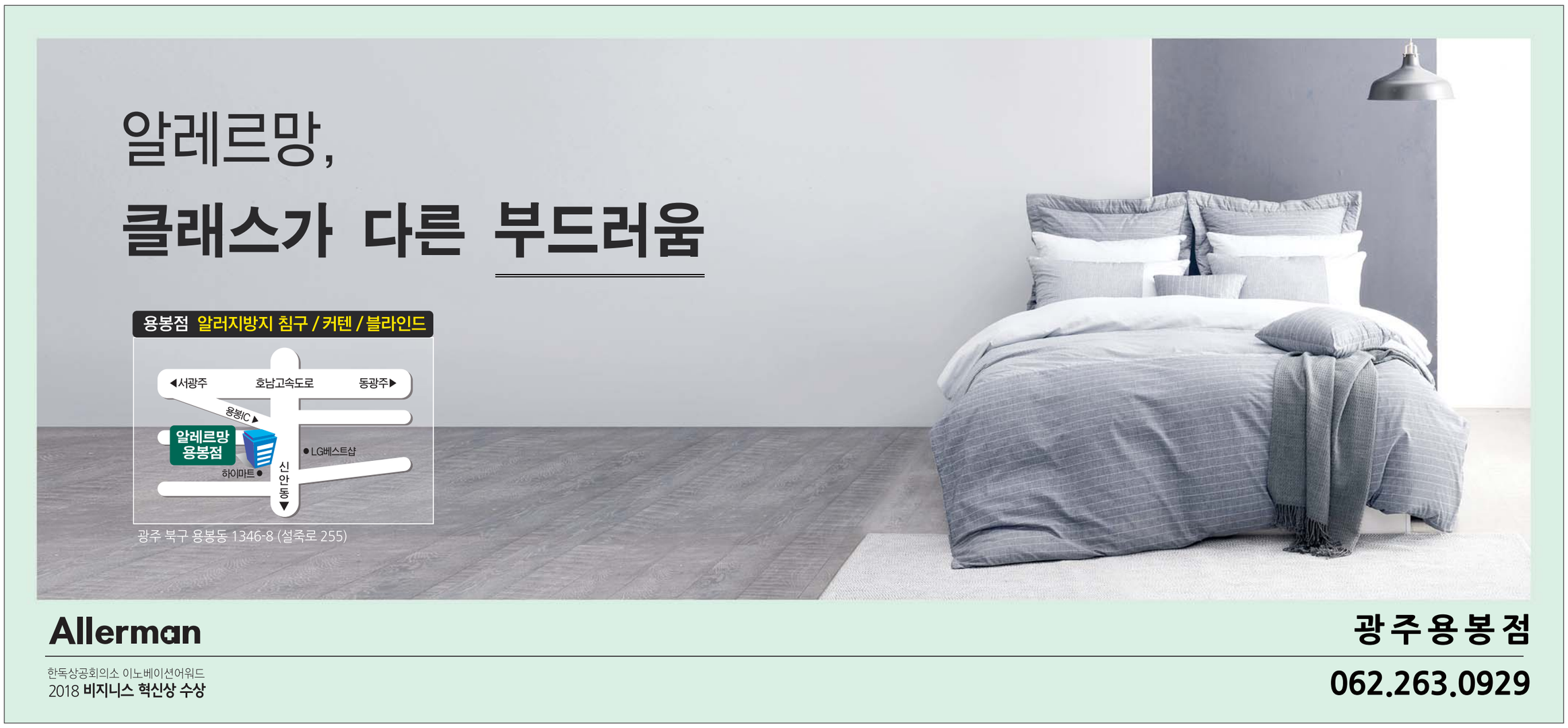
광주시는 오는 5월 초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 전문인력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채용설명회에는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조성'을 위해 꾸려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을 비롯, 티맥스소프트·솔트룩스 등 광주 AI 유치기업과 지역내 인공지능 전문기업들이 참가한다.

채용설명회는 광주지역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과 우수인재 채용을 목적으로 국내 주요 인공지능 전문기업이 직접 채용일정과 절차 등 취업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대학생 및 지역 취업 준비생에게 소개한다.

참여업체는 ▲㈜인코어드 ▲㈜티맥스소프트 ▲㈜솔트룩스 ▲㈜인포웍스 ▲㈜텔스타홈멜 ▲㈜공간정보 ▲㈜싸이버메딕 ▲㈜넷온 ▲고스트페이 ▲㈜인디제이 등 10여개 업체 및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참여해 150여명의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티맥스소프트·솔트룩스 등 광주 인공지능 유치기업과 인공지능 관련 지역업체의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광주형 인공지능 일자리 창출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지난 1월 29일 비전 선포식 개최 및 AI산업융합사업단을 발족시켜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인코어드·티맥스소프트·솔트룩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법인을 설립하는 등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기관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황애란 기자